



3면

민주 전북 의원들 '균형발전 골든타임'

전주매일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음 12월 18일) 제391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00년 먹거리' 피지컬AI-J밸리 조성

전주시, 피지컬AI 핵심거점
전북 지정과 발맞춰 본격화

추진단 신설 등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행정체계 마련

전주시가 국가전략사업인 피지컬 AI 핵심거점 지역 전북 지정과 발맞춰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피지컬 AI-J밸리' (이하 J밸리) 조성을 본격화한다. (관련기사 5면)

시는 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 기반의 피지컬 AI 연구·실증·기업·인재 유치에 유기적으로 연계된 밸리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전주를 세계적인 AI 선도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정치권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연구·실증 인프라와 거점 시설이 집적화된 J밸리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과 연구진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갖춘 J밸리는 약 100만㎡(30만 평 이상) 규모로 조성되며, 피지컬AI 관련 기업 집적화와 지역 산업 기반의 AI 융복합 확산을 이끌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기업인과 연구 인력을 위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선정하고, 생활 SOC를 확충해서 우수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J밸리는 업무·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도시형 혁신밸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시는 연구개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관련 특구 지정과 연계해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가 속도를 내는 한편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AI 관련 국가연구기관 유치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또한 시는 피지컬 AI-J밸리를 중심으로 엔지니어링과 지역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전북대학교·KAIST 등과 연계해 피지컬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



우범기 전주시장이 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 기반의 피지컬 AI 연구·실증·기업·인재 유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밸리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전주를 세계적인 AI 선도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되는 인력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기술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일자리 창출이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육성하고 정착시켜 청년이 머무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각오다.

여기에 시는 피지컬 AI를 농생명·바이오·탄소 등 전북·전주의 특화 산업과 연계하고, 전주만의 강점인 K-콘텐츠(영화·영상·전문문화)와 접목하는 등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러한 J밸리 조성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AI 추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민·관 합동 '피지컬AI 밸리 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산업 비전 수립과 후속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피지컬 AI 산업이 현장에서 구현돼 산업 생태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시는 조속히 조직 내 기획부터 핵심 인프라 구축까지 전담하는 '피지컬 AI-J밸리 추진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추진단에는 피지컬 AI 전문 인력이

배치돼 종합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게 되며, 실증거점이 산업 생태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 지원에도 나선다.

나아가 시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주시의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내에 추진단이 국 단위 조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부 전문 인력 채용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현대자동차와 네이버, SK 등 엔지니어링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해 공동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지역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피지컬 AI-J밸리 조성을 첫걸음으로 삼아 지역의 미래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면 전주 대변역을 이끄는 미래 핵심 동력이자, 청년이 머무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력,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과 인재가 선순환하고, 기술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전주만의 피지컬 AI 특화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AI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장수·순창 군민 10명 중 9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장수·순창 군민 10명 중 9명이 신청을 마치고 현장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1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해 1월 30일 기준 군민의 87%인 2만 4,000여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장수군 역시 1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91%인 1만 19,000여명이 신청했다. 두 지역을 합친 평균 신청률은 89%에 달한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빠르게 진행된 배경에는 도와 두 군의 긴밀한 협력과 현장 대응 강화가 있었다.

신청자는 2일부터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승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첫 지급은 2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 청년, 여기 살맛 난다'

'도지사 출마' 민주 이원택 의원, 청년 정책 발표
주거·결혼·복지 등 청년 삶의 기본 축 묶어
월 1000원 청년주택·1000만원 예식비 지원 골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최근 취임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000원 청년주택과 1,000만원 예식비 지원을 골자로 한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청년들의 외부 유출으로 심각한 인재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전북은 너무나 냉정하리만큼 어려운 처지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의 이같은 청년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이 의원에 따르면 주거·결혼·복지 등 청년 삶의 기본 축을 묶은 패키지형 공약 '전북 청년, 여기 살맛 난다'를 전격 공개하고 현장 목소리를 담은 첫번째 청년 정책으로 '살고 싶은 전북'이란 인식을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북을 떠난 청년은 약 8만7,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감소 가속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다 과감하고 특화된 청년 정책 필요성이 요구됐다.

천원 청년주택 500호 공급에 대해 먼저 이 의원은 청년들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인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해 월 1,000원 수준의 청년주택 500호 공급을 약속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앞으로 민선 9기동안 공공아파트 신규 조성과 기존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병행해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청년 삶의 출발선인 주거 문턱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들의 1,000만원 예식비

용 지원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전주 한옥마을과 부안 출포생태공원 등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 명소를 최신 트렌드에 맞는 공공 시그니처 웨딩홀로 조성·리모델링해 대관료 부담을 사실상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동시에 이용 저조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공공예약장 연계 부가서비스를 대폭 확충해 이용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비롯한 공공예약장 결혼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울·부산의 공공예약장 지원 수준(100~200만원)을 월등히 뛰어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이 의원은 "전북에서 결혼하면 합리적이고 품격 있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청년 근속 복지카드 도입으로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복지카드를 지급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연 60만원, 1~4년 차 재직자에게 연 3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직접 지원해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이 공약은 수혜 인원이 제한된 정부의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과 달리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 지원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 의원은 "청년 정책은 전북 미래 조건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전북 청년이 지역에서 살맛 나는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표는 청년정책 1탄이며 2탄에서는 AI 역량 강화 및 취업·창업·제도권 지원 등 청년이 전북에서 기회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희성 기자

믿고 구매하는 초특가 장수군 직영 쇼핑몰

천혜자연 장수군의 맑은 물로 가꾸어진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